건강 칼럼

정신의 의식... 삶충동, 죽음충동이란

김 수 범

우리한의원장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 희망에 차 있을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다. 여러 상황에서 작용하는 것은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충동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극한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살아야겠다는 강한 욕망을 불태우기도 한다.

구매충동, 도박충동, 성충동, 자살충동, 살인충동 등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충동들이다. 항상 행동을 한 후에는 후회를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시 되풀이 된다. 이러한 충동은 자신의 의식보다는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는 것은 성충동, 자살충동, 살인충동 등일 것이다.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여 성추행, 성폭력, 강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참으면 될 것 같지만 순간을 참는 것이 쉽지 않다. 충동적으로 남을 살해하는 살인충동이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충동 등이 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신의학적, 정신분석적, 심리적으로 해석을 한다. 정신의 의식, 무의식, 마음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은 무의식을 처음으로 알린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이다. 이중 삶충동과 죽음충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초기의 충동, 성충동, 자아충동이란?

초기의 프로이드는 충동을 성욕이 발생하는 성충동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욕구인 배고픔, 섭식과 같은 자아충동, 자기보존충동으로 구분하였다. 성충동은 자신의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를 외부대상을 향하거나 자신의 자아를 향하여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이다. 자아충동은 방어, 갈등에서 에너지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배고픔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충동을 말하며 자기보존충동과 동일시하였다.

삶의 충동, 죽음충동이란?

후기의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을 넘어서"(1920년)에서 삶충동과 죽음충동으로 나누었다. 삶충동은 사람이 살아가고 생명을 연장하고 2세를 낳으려는 충동이며, 죽음충동은 자신이 스스로 죽어가고자 하는 충동으로 이해가 쉽지는 않다.

삶충동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통일성과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분화되고, 보다 조직화된 형태를 만들어 유지하고, 인체와 환경사이 에너지의 수준차이를 지속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삶을 의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지혜, 부, 명예, 건강, 가족, 행복 즐거움 등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에로스, 사랑의 충동의 목적은 보다 큰 통일을 이루어 유지하려는 것으로 결합을 의미한다. 성적인 결합은 성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인 양성적인 존재인 통일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아닌 2세를 통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죽음충동은 자아충동, 자기보전충동을 일치시키고자 했다. 죽음충동은 생물을 무생물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충동으로 생물이 무생물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경향을 말한다.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죽음충동은 생물이전의 무생물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충동이다. 죽음충동은 처음에는 내부를 향해 자기파괴를 지향하다가, 인체 내의 리비도에 의하여 2차적으로 외부를 향해 공격충동이나 파괴충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리랑은 모든 충동들은 죽음의 충동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충동은 과도한 것이고 반복적이며 공격적으로는?파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쾌락원칙을 넘어서서 즐거움이 고통으로 경험되는 과도한 흥분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동양철학에서의 음양오행(陰陽五行),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과 같이 생장화수장(生長化收藏)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수확하고 저장하며 죽고 다시 태어나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연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번창하고 수확하며 마지막에는 죽음으로써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정신분석에서는 삶충동과 죽음충동이 서로 대립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의욕적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연장하고 2세를 탄생시키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려고 한다. 또한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한 충동이 작동을 하고있는 것이다. 삶충동이 강할 때는 죽음충동이 약하지만, 삶충동이 약해지면 죽음충동이 점점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갈 때는 삶의 충동으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한다. 어느 시점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편안하게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마음으로, 열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독자제언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급할수록 천천히,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급하다고 생각해서 서두르면 집중이 안되고 능률도 떨어진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은 교통상황에서도 해당된다. 조급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 교통상황에 따른 안전운전을 하지 않게 되고, 과속 및 잦은 끼어들기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 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과 돈이 낭비된다.

상기 내용은 도시의 교통안전 및 안전속도 정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이유이다.

도시부 주요도로 '50', 주택가 및 이면도로 '30'으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정책으로, 2018년 도입되어 2021년까지 교통환경에 반영하여 정착되었고, 2021년 4월 17일 전국 시행되었다.

그 효과는 교통사고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 32.7% 감소, 부상자 19.3% 감소 등 상당했다.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속도관리구역 진·출입부에 별도의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하였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속도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큽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지키기 실천합시다.

김선태 익산경찰서 교통지구대 경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북아일랜드, 브렉시트 둘러싼 충돌 재개

19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서부 라나크웨이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설치한 불타는 바리케이드에서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북아일랜드의정서를 둘러싸고 영국 곳곳에서 충돌과 시위가 재개됐다. .

사 설

미얀마와 아웅산 수치

미얀마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에 맞서기 위해 민주진영은 소수민족들과 함께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했다. 2개 정부가 양립하면서 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적 환심을 사려는 듯 2만3천 명이 넘는 재소자들을 사면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Myanmar)는 1989년 버마(Burma)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1962년 3월 네윈(NeWin) 장군의 쿠데타로 1948년 이후 집권해 온 우누(UNu) 정권이 전복되었다. 1983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를 공식 방문했을 때 아웅산 암살 폭발사건이 일어나 한국의 정부 요인들이 희생당했다.

미얀마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치는 45년생으로 올해 75세다. 그녀는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15년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총선에 승리하면서 미얀마에 첫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오래 전 영국은 미얀마 국민(불교)들이 독립운동을 하자 북부 로힝야족(이슬람)을 동원했다. 독립을 원했던 로힝야 족은 어쩔 수 없이 영국 편에 섰다. 하지만 미얀마 독립 이후 로힝야 족은 영국으로부터 버려졌다.

2018년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 9,700여 명을 학살했다. 로힝야 족은 인구 3분의 2인 62만 명이 같은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로 피난길에 올랐다.

이를 지켜보기만 한 아웅산 수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실망이 이어졌다.

그러나 미얀마 국민은 수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줬다. 지난해 11월 열린 미얀마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은 다시 군부에 맞서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군부는 끊임없이 총선을 부정했다.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고문 등은 다시 구금됐다. 미얀마의 시계는 다시 1990년으로 돌아갔다.

전북 도내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전북 도내에 해마다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 학령인구가 없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은 농어촌 학교들이다.

올해 도내 농어촌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학교는 무려 9곳에 이른다.

군산 개야도를 비롯해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등 대부분 농어촌 지역 학교들이다. 임실군 삼계면의 어느 시골학교는 이 지역의 유일한 초등학교이다. 그러나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해마다 3-4명의 신입생이 꾸준히 입학해 왔는데 올해는 뚝 끊기고 말았다.

젊은 학부모가 거의 없다보니 앞으로도 신입생 모집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전북 도내에서는 모두 11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전교생이 다섯 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5곳, 중학교는 4곳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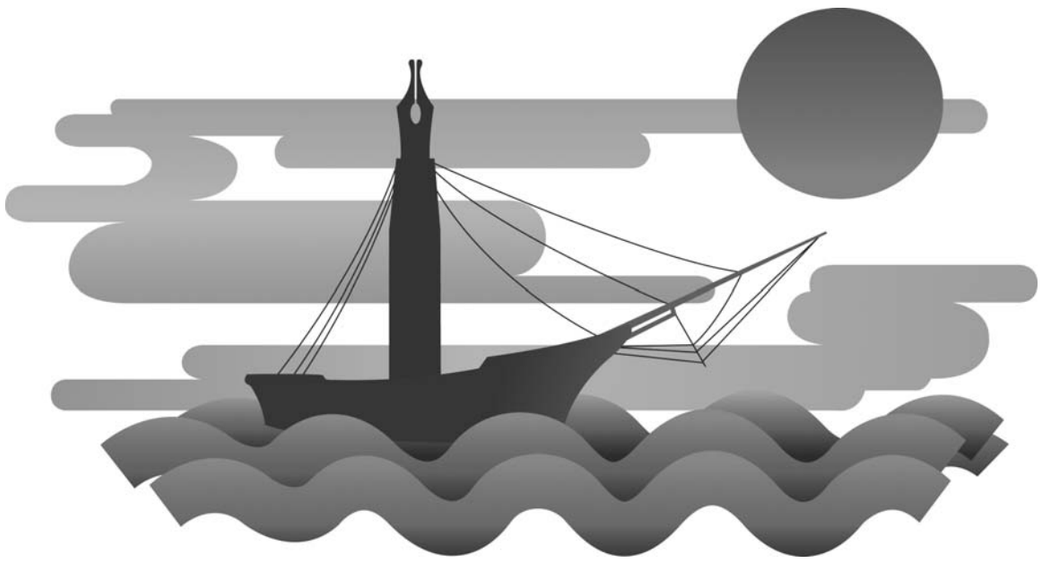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다. 정부의 통폐합 권고 기준인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는 425개 학교 가운데 200개 학교다. 중학교는 210개 학교 중 84개 학교가 해당된다.

전북지역은 농어촌 학교가 전체 학교의 60%를 차지하면서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다른 시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심 지역 학생들과 읍 지역의 규모가 큰 학교 학생들을 시골 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대책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학생 밀집도를 완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선이 붕괴된 도내 초등학생 수는 올해 9만 2천여 명으로 줄었다.

4년 뒤인 2025년에는 무려 7만 5천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소멸은 학교 현장에서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